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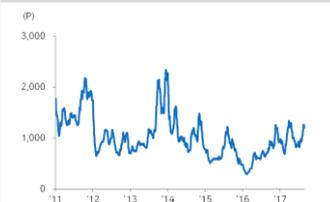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613.1	17.4	152,000	1.3	-15.6	-15.1	9.8	54.7	123.7	0.8	0.8	1.3	0.6
현대로보틱스	7,190.5	19.3	441,500	1.7	3.5	2.2	NA	4.8	5.5	0.9	0.8	19.4	15.8
현대일렉트릭	1,101.9	7.6	297,000	-0.5	-8.9	-5.4	NA	14.6	9.8	1.4	1.2	9.5	13.1
현대건설기계	1,324.3	10.3	369,500	2.8	3.6	18.8	NA	11.5	8.8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4,309.5	19.2	11,050	2.8	-3.9	-11.6	19.5	56.1	119.5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9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090.0	13.2	104,500	5.6	-4.6	4.0	55.5	10.3	35.4	0.9	0.8	8.9	2.4
한진중공업	509.6	5.4	4,805	8.0	7.4	13.7	42.8	-15.0	10.9	0.6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88.3	28.6	52,300	0.4	-7.8	-20.0	-8.9	9.7	9.2	1.4	1.3	15.9	14.6
두산중공업	3,553.8	24.5	35,450	-0.4	2.6	-5.2	-1.1	15.6	14.3	1.0	0.9	6.6	6.7
현대로템	1,542.8	27.8	18,150	2.5	-6.0	-17.9	0.0	34.4	23.3	1.1	1.0	3.2	4.6
하이록코리아	296.1	46.6	21,750	-0.5	-5.4	-11.6	3.1	11.4	10.0	0.9	0.9	8.5	9.0
성광벤드	277.4	13.8	9,700	0.3	-1.5	-15.3	9.5	31.4	18.1	0.6	0.6	1.9	3.2
태광	257.1	16.9	9,700	1.1	-0.8	1.8	17.0	36.3	20.0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11.0	10.3	17,950	1.4	-13.7	-23.6	-34.0	21.6	10.3	0.6	0.6	3.3	5.9
두산인프라코어	1,645.1	10.9	7,930	-0.3	2.6	-12.0	-10.1	9.5	7.6	0.8	0.8	8.4	10.2
두산엔진	278.0	4.8	4,000	4.7	0.4	-4.2	21.8	21.5	24.6	0.5	0.5	2.4	2.0
한국항공우주산업	4,225.0	20.3	43,350	4.5	-15.3	-32.4	-35.3	24.6	16.2	2.8	2.5	11.4	16.1
한화테크윈	2,004.1	21.1	38,100	-1.3	-4.3	-25.0	-12.3	19.2	14.6	0.8	0.8	4.4	5.6
LIG넥스원	1,731.4	20.6	78,700	0.9	-4.6	-4.5	-2.2	17.7	17.0	2.4	2.2	15.2	13.6
태웅	404.1	4.4	20,200	1.8	-15.3	-29.6	-10.0	52.2	17.9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45.7	3.1	5,400	6.5	-11.2	-25.5	-6.1	-25.1	10.7	1.3	1.2	-5.1	12.0
한국카본	260.7	16.6	5,900	-0.7	-1.7	-11.6	-2.0	NA	NA	NA	NA	NA	NA

주: 커비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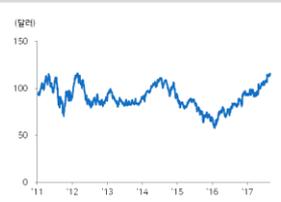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9** 120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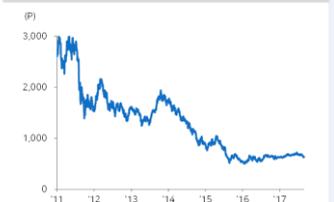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57** 115.35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치수 123p, 중고조선가치수 87p 유지

Clarksons 신조선가치수는 123p, 중고조선가치수는 87p를 기록함. 중국 Jiangsu New Yangzijiang SB는 Angelakos에게 벌크선 8.2만DWT급 4+2척을 수주함. 또 Avic Dingheng은 Socatra에서 8천DWT급 탱커 2척을 수주함. 미국 Keppel AmFELS는 Pasha에게 2.5천TEU급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함. (Clarksons)

Statoil tenders for LNG trading and bunker ship

오일메이저 Statoil은 벵커링을 할 수 있는 소규모 LNG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해 입찰을 시작함.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모의 LNG 선박의 가격은 벵커링 장비를 제외하고 7~8천만달러로 예상됨. 또 Statoil은 자체 운영 선대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LNG bunkering kicks off in UK

영국에서 Flogas Britain은 처음으로 LNG Bunkering을 시작함. 노르웨이의 시멘트 운반선은 영국 Immingham 항구에서 Flogas에게 벵커링으로 LNG를 공급 받음. 회사 관계자는 선박들의 연료 수요는 석유에서 LNG로 전환 중이며, 장기적으로 LNG가 주된 해양 연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대우조선 "특수선사업 분할 안해...자구계획 차질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8월 25일 공시를 통해 특수선사업(방위산업) 부문 분할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밝힘.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가 경제적 효용이 낮고, 매각하지 않아도 전체 자구안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함.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말까지 잡힌 2.8조원 자구 목표 중 현재 2.3조원(83%)을 달성함. (연합뉴스)

Bahri places \$120m order at Hyundai Mipo

사우디아라비아의 Bahri는 현대미포조선에게 총 1.2억달러 규모의 벌크선 4척을 주문함. 증가하는 곡물 수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벌크선을 주문함. 현재 4척의 벌크선을 운영하며, 이번 건조로 함대를 두 배로 확장함. 해당 선박은 2020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항해 당 최대 8만메트릭톤을 수용 가능함. (TradeWinds)

Norway cuts investment forecast

노르웨이 통계기관은 석유회사의 탐사 지출 감소에 따라, 내년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에 대한 전망을 낮춤. 2018년 예상 투자는 1.1천억달러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 대비 1.5% 낮음. 추가로 Johan Castberg와 Snorre Expansion의 투자 계획은 2017년 4분기 또는 2018년 초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Upstream)

Wartsila grabs meaty business for boxships

선박기자재 업체 Wartsila는 작년 8월 독일 MarLink Schiffartskontor가 중국 Fujian Mawei Shipbuilding에 예약한 1.1천TEU급 선박 6척에 기자재 납품을 계약함. 기자재에는 IMO 환경규제 기준에 맞춘 밸러스트 수 관리 시스템과 유황 저감 장치 포함됨, 친환경 선박 기준에 충족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노후선박 교체에 40억원 지원...신조발주 이어질까

정부는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43억원 규모의 친환경 보조금 지원을 추진함. 이는 IMO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알려짐. 그러나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당 보조금의 규모가 선박을 폐선해 신조를 발주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함.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